

# 감귤가공공장 스톱... 감귤처리 '비상'

### 제주도개발공사 노조 27일부터 총파업 "30일 출장식... 기한은 경영진 퇴진때까지" 수개월치 물량 비축된 삼다수는 영향 적어

제주도개발공사(JPDC) 노동자들이 총파업에 돌입하기로 하면서 감귤 산업에 직접적인 타격이 예상된다. JPDC노동조합은 오는 27일부터 총파업에 돌입한다고 24일 밝혔다. 기한은 '경영진 퇴진시까지'이며, 오는 30일 오전 9시 제주시 조천읍 교래리 소재 삼다수공장에서 출장식을 진행하고, 다음달 2일에는 제주도청에서 집회를 개최할 예정이다. JPDC노조는 지난해 10월 발생한 '삼다수공장 사망사고'를 계기로 열악한 근로환경을 개선하기 위해 지난 2월 결성됐다. 이어 7월부터는 JPDC와 단체교섭을 진행, 근로자 처우 및 근로조건 개선과 노동이사제 도입 등을 요구했지만 합의에는 이르지 못했다. 이에 따라 JPDC노조는 지난 20일

612명의 조합원을 대상으로 쟁의행위 찬반투표를 진행해 97.26%의 찬성을 얻어냈고, 23일에는 제주지방노동위원회의 노동쟁의 조정회의까지 결렬되면서 파업이 현실화된 것이다. JPDC 노조는 "총 19차례에 걸쳐 단체교섭을 진행해 근로조건 개선 등 166개 조항에 대해 지난 9월 서면합의에 이르렀다"면서 "하지만 경영진은 수차례 단체협약 체결을 늦추고, 종국에는 오경수 사장이 참여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무효라는 황당한 주장을 펼치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어 "경영진과 제주노조는 합법적 절차에 따른 단체교섭을 백지화함으로써 노동자를 쟁위행위로 내몰고 있다"고 덧붙였다. 파업이 현실화되면서 가공용 감귤 처리에 비상이 걸렸다. 제주도에 따



제주도개발공사 노조 파업으로 삼다수 생산과 가공용 감귤처리 비상이 걸렸다. 한라일보 DB

르면 올해 가공용 감귤 처리 물량은 약 9만t으로, JPDC가 맡고 있는 물량이 5만t에 달하기 때문이다. 나머지는 롯데칠성과 일해가 각각 2만t씩 처리하고 있다. 특히 감귤 수확기에 접어들어 지난달부터는 JPDC 감귤 가공 1·2공장이 24시간 가동, 하루 690t을 처리하고 있는 상황이다. 이로 인해 가공용 감귤 적체 물량이 증가하고, 수매기간 지연에 따른 부패와 증가 등 품질저하가 우려되

고 있다. 특히 지난 12일 제주도가 감귤 가격 하락을 막기 위해 60억원을 투입, 2L 규격 감귤 2만t을 수매하면서 이러한 적체현상은 더 깊어질 것이라는 예상이다. 제주도 관계자는 "JPDC에 남아 있는 감귤은 일해로 이송해 가공처리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한편 삼다수는 수개월치가 비축돼 당장 파업으로 인한 생산 차질은 없을 것으로 알려졌다. 송은범기자

# 테이프로 감은 '관광 1번지'

### 송악산둘레길 파손 시설 테이프로 안전조치 '눈살' 올레길 고사 소나무 방지



파손된 데크시설을 테이프로 안전 조치해 눈살을 찌푸리게 하고 있다.

서귀포시 대표 관광지 손꼽히는 송악산둘레길과 올레 7코스에 파손된 데크시설이 방치돼 있거나, 썩은 소나무가 흉물스럽게 있는 등 관광객들의 미관을 찌푸리게 하고 있다. 특히 해당 관광지는 천혜의 자연 경관을 감상할 수 있어 탐방객 등의 발길이 지속적으로 이어지는 곳이지만, 관광지 내의 미관 저해 요소에 대한 관리가 제때 이뤄지지 않고 있어 행정의 세심한 관심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최근 찾은 서귀포시 대정읍 송악산 둘레길, 탐방로에 조성된 데크시설 일부가 파손돼 있다. 더욱이 송악산 절벽과 인접해 있는 데크시설이 파손됨에 따라 각별한 주의가 필요해 보였지만, 파손된 데크시설에 대한 안전조치는 가느다란 밧줄과 노란색 테이프가 연결된 것 뿐이었다. 박모(28)씨는 "절벽 근처에 조성된 데크시설이 파손돼 있는데 안전

조치가 미흡해 안전사고가 발생하지 않을까 우려스럽다"며 "사람들이 많이 찾는 관광지에 대한 세심한 배려가 필요해 보인다"고 지적했다. 같은 날 찾은 서귀포시 호근동 돌배낭굴 인근 올레 7코스 곳곳에는 고사된 소나무가 흉한 모습으로 방치돼 미관을 저해하고 있었다. 서귀포시 관계자는 "올레 7코스 일대는 지난 10월 태풍 영향으로 소나무가 꺾이고 데크시설 일부가 파손되는 피해가 있었다"면서 "당시 파손된 데크시설은 현재 복구가 모두 이뤄진 상태로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는 내년도 예산을 확보해 복구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이태윤기자 lty9456@ihalla.com

# "초·중학교 입학전에 예방접종 확인하세요"

제주시 동부보건소는 2020년도 초등학교 및 중학교 입학 예정인 학생들을 대상으로 예방접종 확인사업을 실시한다. 내년 자녀가 초등학교 입학할 앞둔 부모는 만4~6세 사이에 접종해야 하는 4종의 백신 접종여부를 확인해야 한다. 접종 대상 백신은 DTaP(디프테리아·파상풍·백일해) 5차, 소아마비 4차, MMR(홍역·유행성이하선염·풍진) 2차, 일본뇌염(사백신 4차 또는 생백신 2차) 등이다. 중학교 입학 예정인 자녀를 둔 보호자는 만11~12세에 받아야 하는 예방접종 2종에 대해 접종여부를 확인하면 되며 접종대상 백신은 Tdap(디프테리아·파상풍·백일해) 또는 Td(파상풍·디프테리아) 6차, 그리고 여학생 대상으로 HPV(사람유두종바이러스) 예방접종이다. 접종여부 확인은 보건소 및 보건지소를 방문하거나, '예방접종도우미' 사이트(<https://nip.cdc.go.kr>)에서 확인이 가능하다. 고대모기자



메리크리스마스... 제주시 키즈빌어린이집 원아들이 크리스마스이브인 24일 산티클로스 선물을 받고 즐거워하고 있다. 이상국기자

# 제주도교육청 6급이하 113명 승진·전보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은 24일 홈페이지를 통해 2020년 1월 1일자 6급 이하 지방공무원 113명에 대한 인사를 예고했다. 이번 인사예고는 6급 승진 20명

등 승진자 30명을 포함 18명의 신규 임용, 휴·복직자, 교육훈련·과연자 등을 위주로 한 전보인사로 최소화했다. 내년 4월에 전보 내신자, 기관·지역만기자 등에 대한 후속 인사

가 예정되어 있다. 이날 예고한 인사 확정과 5급 이상 지방공무원 인사 발표는 이달 26일 이루어질 예정이다. 승진자, 신규 임용자, 5급 이상 전보자에 대한 발령장 수여는 오는 27일 도교육청 대회의실에서 열린다. 전선희기자

# '제주 월평동 살인사건' 피의자 검찰 송치

'제주 월평동 살인사건' 피의자 A(49·여)씨가 검찰에 넘겨졌다. 제주동부경찰서는 살인 혐의로 구속된 A씨를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고 24일 밝혔다. A씨는 지난 17일 제주시 월평동 한 주택에서 B(58)씨를 흉기로 찔러 살해한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경찰 조사에서 횡설수설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지난 17일 제주시 월평동 한

주택에서 B씨가 흉기에 찔려 숨진 채 발견됐다. 경찰은 같은 지번의 주택에 살고 있는 A씨를 유력 용의자로 특정하고, 이날 오후 7시30분쯤 제주시 한 버스정류장에서 버스를 타고 있는 A씨를 긴급체포했다. 경찰이 사건 현장에서 확보한 흉기와 증거물을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 감정 의뢰한 결과, A씨의 유전자(DNA)가 검출됐다. 김현석기자

# 제주민속촌 신년 해맞이

제주민속촌은 2020년 경자년(庚子年)을 맞아 지역주민 및 도내·외 관광객의 건강과 안녕을 기원하는 '신년 해맞이' 행사를 개최한다고 24일 밝혔다. '신년 해맞이 행사'는 새해 첫날 오전 6시30분부터 '표선 당개포구'에서 진행된다. 표선지역은 제주에서 새해 일출을 가장 먼저 볼 수 있는 곳이다. 김정설기자

**자신을 사랑할 줄 알고, 그만큼 다른 사람을 사랑할 줄 아는 모든 생명의 소중함을 깨닫게 하는 고마운 숲!**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은 우리 아이들이 제주생태환경의 가치를 알고 자연과 더불어 올곧게 성장할 수 있도록 다양한 생태환경교육과 체험프로그램 개발에 노력하고 있습니다.

배려와 협력으로 모두가 행복한 제주교육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